



# CPTPP와 한국 경제의 미래

---

최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번 정부 내 CPTPP 가입을 신청한다'고 말하여 주목받았는데요, 과연 이 CPTPP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CP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통합을 목적으로 세워진 일종의 자유무역협정(FTA)로, 상호 간의 수출입 관세나 시장 점유율 제한 폐지, 법률제도 단일화, 무비자 협정 90일 확대 등 평범한 자유무역협정보다 규모가 훨씬 큰 '공동시장'입니다. 자유무역협정은 상호 간 관세 폐지로 소비자의 선택권 증진, 경제적 자유도의 향상 등의 장점이 있지만, 관세 폐지로싼 가격에 shav은 품질로 들어오는 외국 상품에게 국내 상품이 밀려 경쟁력을 잃는 등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원래 CPTPP는 TPP라는 이름의 국제기구였습니다. 하지만 자유무역에 반대하고 보호무역주의를 주장하는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고 트럼프가 TPP를 탈퇴해버렸고, 이후 일본을 중심으로 11개 국가들이 일단 미국을 제외하고 TPP를 비준하였으며, 미국이 재가입하기 전까지만 '임시'로 맺은 협정이라는 뜻에 따라 임시적인 표현을 뜻하는 CP가 붙어서 CPTPP라는 이름의 국제기구가 되었습니다.

(당사자의 입장)

대한민국 정부는 그간 CPTPP에 가입할지 말지 고민해왔었다가,최근에는 홍남기 장관의 발언 등을 통해 CPTPP 가입에 긍정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아래서 설명할 쌀에 대한 관세나 일본과의 관계,미국의 TPP 재가입 거부 등 한국의 CPTPP 가입에 부정적인 요소들이 많지만,그래도 정부는 CPTPP 가입으로 얻을 득이 실보다 많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농민들은 CPTPP 가입에 크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CPTPP에 가입하면 쌀에 대한 관세를 철폐해야 하는데, 우리 정부는 그동안 수입산 쌀에 대해서만큼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었는데요,이유는 관세가 폐지되면 인건비가 저렴하고 쌀 생산에 유리한 기후를 가진 중국 남부나 동남아산 쌀이 국내 쌀 시장에서 국내산 쌀을 밀어내고 국내 쌀 시장을 장악 할수도 있기 때문입니다.실제 동남아 국가 중 베트남,싱가폴,브루나이,말레이시아는 이미 CPTPP에 가입하였고,중국도 CPTPP에 가입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일본은 최근 역사 문제,독도 문제 등으로 한국과 사이가 틀어졌기 때문에 한국의 CPTPP 가입을 반대할 확률이 높고,가입에 찬성한다 하더라도 한국에게 불리한 조건을 요구할 확률이 높습니다.

(나의 견해)

저는 현재 한국이 CPTPP에 가입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쌀 관세 문제나 일본과의 관계 등의 문제가 있지만,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현재 미국이 CPTPP에 복귀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보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TPP가 주목받았던 이유는 TPP 전체 경제규모의 무려 65%를 차지하던 미국과 관세 등의 제한 없이 무역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잠깐 설명했듯이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되고나서 TPP를 탈퇴해버립니다.현재는 바이든이 트럼프를 꺾고 미국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미국의 재가입을 기대하는 예측이 있었으나,결국 바이든도 TPP에 재가입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현재 미국이 2008년 세계금융위기,코로나바이러스 창궐로 인한 경제침체를 계속 겪으며 정치 성향을 막론하고 보호무역주의 성향이 강해졌기 때문으로,아무리 CPTPP 재가입을 원하는 미국 정치인이 있더라도 선불리 의견을 표명했다가는 선거에서 패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미국이 재가입을 할 가능성은 낮고,저도 미국이 탈퇴하여 일본 주도로 남게 된 CPTPP에 가입해서 크게 얻을 이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해결 방안)

일단 저는 위와 같은 이유로 우리나라가 CPTPP에 가입하는 것에는 반대합니다.하지만 코로나 등으로 인해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의 경제와 무역이 침체 상황이고,이로 인해 전 세계에서는 반세계화,보호무역주의가 퍼지고 있습니다.교통과 기술의 발달로 외국과의 교류가 더욱 활성화되고 세계가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며 함께 성장해가는 이러한 세계화 시대를 위협하는 요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저는 세계화에 찬성하고,각 국가들끼리 협력하여 좀 더 발전된 세계를 만드는 것을 원합니다.그렇기에 비록 CPTPP에는 참여하지 않더라도,우리나라가 다른 경제협력체나 경제기구 등에 가입하여 다른 나라들과의 교류를 더 활성화하고 경제 위기를 극복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